

신년 화두는 ‘절약’…가계부 다시 쓴다

“있는 돈 지키자” 심리 확산…재테크에도 복고 열풍

돼지저금통 매출 20%↑…상품 구입·보험 계약 직구 늘어

‘허리띠 졸라매고,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한 톨의 동전이라도 아껴쓰자’ 1970년대 구호가 아니다.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에 ‘복고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돼지저금통과 가계부 등 과거의 유품으로 치부됐던 물품 판매가 늘고, 돈을 아끼기 위한 다양한 보험·금융상품도 관심이 받고 있다.

병신년 새해 경제 화두는 단연 ‘절약’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돈을 더 버는 것보다는 있는 돈을 아끼고 지키는 게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7일 지역 문방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돼지저금통·가계부의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시 서구 내방동 A 문방구 업주는 “과거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이 주로 돼지저금통을 구입했는데 최근에는 성인들이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문방구의 돼지저금통 매출은 과거에 비해 20%가량 증가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돼지저금통과 가계부의 매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매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돼지저금통은 절약의 상징적인 물품이며, 다

양한 인터넷 가계부 서비스 속에서도 손으로 쓰는 종이 가계부를 다시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가계부의 판매 급증은 ‘축적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는 경제 명언처럼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리 소비 계획을 세워 날짜별로 쓸 돈을 종이 봉투에 담아 놓고 쓰는 ‘봉투 소비’도 ‘복고재테크’의 일부다. ‘봉투 소비’는 다소 정확한 금액 사용을 측정하기 힘든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고 현금을 쓰는 대신, 미리 계획을 세울 돈을 쓰겠다는 절약법이다.

가장 싼 물건을 찾아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해외 직구’처럼 기존에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됐던 비용을 아끼기 위한 ‘보험 직구’도 생겨났다.

특히 올해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전화로 가입하는 텔레마케팅 보험(TM)보다 보험료가 4~10% 저렴하고,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것보다는 14%가량 싸다. 텔레마케터나 설계사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가 없어진 만큼 보험료가 저렴하다.

온라인보험은 스스로 가입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 13개사, 생명보험사 23개사 등 총 36개 보험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도 선보였다.

‘세(稅)테크’ 상품도 인기다. 올해부터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재형저축·소장펀드를 대신하게 된다.

ISA는 통장 하나에 예·적금, 펀드, 부동산 투자회사 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아 운용하고,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3~5년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뿐만 아니라 농·어·민으로 확대됐다.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까지 비교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결혼 준비 등으로 전·월세 자금 소요가 있는 청년층(15~29세)의 의무 가입기간도 3년이다. 비교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9%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이는 일반 이자·배당소득세인 15.4%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04.33 (-21.10)	금리 (국고채 3년) 1.64% (0.00)
↓ 코스닥 679.66 (-7.61)	↑ 환율 (USD) 1200.60원 (+2.70)

中企 ‘인력·기술 빼가기’ 제재 강화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개정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인력·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시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

정하고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력을 인정하게 된다.

시장점유율을 통해 사업자가 시장력을 지녔는지를 우선 판단한 이후 불공정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는지,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끼워팔기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2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끼워팔기’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연합뉴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 부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7일 신입 광주점장에 김정현(49) 대구 상인점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입 점장은 “임직원과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고 신뢰하며, 무엇보다 고객 제일 서비스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고객과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백화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현 신입 점장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



업하고 1994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광복점 지원팀장, 대구 상인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해 승진한 전임 유영택 점장은 부산 광복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신세계·롯데百貨

설 아르바이트 모집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한다.

광주신세계는 설 명절 전까지 배송운반, 상품권 포장, 상담 접수 등의 업무를 맡을 사원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120여명을 모집한다.

급여는 하루 6만5000원선이며 식사가 제공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이외 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광주신세계 아르바이트 사원 신청은 광주신세계 인사과(062-360-1054)나 채용 관련 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설을 맞아 전화상담 및 접수, 선물세트 검품 및 신속배송, 상품권 포장 분야에서 일할 단기 아르바이트 사원 4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요리 레시피 알려주는 삼성 냉장고

6일 ‘클럽 드 셰프 코리아’의 멤버인 강민구(왼쪽부터) 셰프,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서병상 부사장, 임정식 셰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현장에서 ‘셰프컬렉션 패밀리 허브’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이 냉장고는 도어에 위치한 21.5인치 풀HD 터치스크린으로 각 저장실별 기능을 설정하고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셰프컬렉션 앱’을 통해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알려준다. <삼성전자 제공>

새얼굴

“보금자리론 등 서민 저리 지원 확대”

김영환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

“지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일자로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으로 부임한 김영환(54) 지사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어두운 만큼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장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득 감소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낮은 고정금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전

세자금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연금과 관련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으로 길어진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강조했다.

순천 출생인 김 지사장은 순천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대신증권에 거쳐 주택금융공사에서 소비자보호팀장, 광주지사 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축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4층) 신축원룸

(코너자리, 아파트 정문, 마트 부근)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보 5,000만 - 월 500만 ☆

매가 6억 8천만 (용 1억2천)

010-7384-7800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만, 용 6억)

매가 15억5천

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1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7천

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③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010-6670-9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특수물건 추천)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룸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

2. 동구 수기동 (토 130평, 건 320평)
(1층, 생활시설,창고-2층~3층,소매점-4층~5층,사무실)
감정가 10억 → 최저가 4억8천만

3. 전남 순천시 황전면 (토 05평, 건 221평)
(1층,음식점 - 2층 커피숍 - 3층 사무실 - 지하,보일러실)
※구례구역 부근, 섬진강 부근으로 경치 좋음
감정가 4억2천 → 최저가 1억5천

4.동구 학동 (토 114평, 건 60평)
※학운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
약 2미터 도로 접으로 차량 통행가능
감정가 2억 6천 → 최저가 2억6천

☆ 경매 투자 ☆

→ 공동투자 가능, 단독 투자 가능, 후순위 설정, 연이자 15%

010-6834-4800

수익성 상가 (근린주택,주택)

① 북구 신안동 (토 53평,건140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1억6천
② 서구 금호동 (토63평,건370평)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3천
③ 광산구 서봉동 (토202평,건84평) (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
④ 남구 월산동 (토 34평,건43평)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4백

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

① 서구 광천동 (토 54평, 건 155평)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8천
② 광산구 월계동 (토 86평, 건 161평)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2억3천
③ 서구 쌍촌동 (토 90평, 건 364평)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6천
④ 서구 양동 (토174평, 건 424평)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

아파트 추천

북구 신용동 (침단지구) (토18평,건25평) 총 15층중 7층
감정가 3억5백만 → 최저가 2억1천3백만

토지 추천

북구 장동동 (토지) 291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

8층 상가건물 경매

북구 오룡동 (삼성전자 정문 앞)

☆ 감정가 35억 (대출 30억)

☆ 분할 등기시 향후 60억 가치

☆ 2016년 1월 12일 경매일

1층 (상가 130평)
2층~7층 (고급 오피스 56개)
8층 (주택겸 사무실 41평)

경매 교육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 창출 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경매입찰 매매, 임대 개발 기획까지)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주)대신경매

010-6832-9800